

**요지:**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지식의 대양인 아버지와 브라마푸트라 강과의 이 합류는 다이아몬드와 같다. 너희 자녀들은 조개껍데기에서 다이아몬드로 변하려고 여기에 온다.

**질문:** 황금시대 왕국은 언제 어떻게 세워지느냐?

**대답:** 불순한 세계 전체가 깨끗해지면, 즉 낡은 세상이 파괴되면 그때 황금시대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너희들은 그 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너희들은 순수해져야 된다. 불순한 인간이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을 때, 새 왕국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 시대가 시작되지 않을 것이다. 비록 라데와 크리슈나가 태어난 후겠지만, 그때는 황금시대라고 불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락쉬미와 나라얀의 형태로 왕국의 옥좌에 앉을 때 그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영혼들이 계속 오고갈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되새겨야 한다.

**노래:** 지금은 봄이니 세상을 잊어야 하네.

옴 산티. 너희 자녀들은 어디에 왔느냐? 지식의 대양의 해변에 왔다. 사실 너희들은 지식의 갠지스강의 강둑 위에 거주하는데, 지금은 지식의 대양의 해변에 왔다. 누가 왔느냐? 지식의 갠지스강들이 왔다. 무엇이 되려고 왔느냐? 빈 조개껍데기에서 다이아몬드로 변하려고, 즉 가난에 찌든 데서 왕관을 쓴 이가 되려고 왔다. 브라마는 브라마푸트라 강이고 쉬바는 지식의 대양이다. 이 사람이 브라마푸트라 강이다. 그는 자녀이다. 브라마는 쉬바의 아들이다. 너희들은 손자들이다. 캘커타에서는 대양과 강들이 아주 크게 만난다. 갠지스강, 브라마푸트라 강, 대양이 거기에서 만난다. 다른 강들도 역시 브라마푸트라 강으로 흘러든다. 브라마푸트라와 대양의 만남이 주된 만남이다. 그것은 다이아몬드 항구라고 불린다. 영국인들이 그런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들은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이 그곳을 그런 이름으로 불렀을 뿐이다. 아버지가 그 의미를 너희에게 설명한다. 지금 이때에 너희들은 직접 브라마푸트라와 지식의 대양에게로 왔다. 너희들은 다이아몬드가 되려고 직접 그곳의 대양으로도 간다. 그러나 다이아몬드가 되지 않고 돌이 되는데, 그것이 신봉의 길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영혼과 지고의 영혼과의 합류이다. 돌이 함께 있다. 저것은 살아있지 않은 (기념물)인 반면, 이것은 살아있는 형태이다. 이 사람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 자녀들도 역시 브라마푸트라와 대양, 양쪽이 살아있는 형태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언제나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다이아몬드가 되는 합류이다. 너희들은 다이아몬드처럼 되어야 한다. 이 사람은 브라마푸트라이며, 입양된 지식의 갠지스강이다. 이런 강들이 무수히 많다. 바라트에 강이 많다는 것은 모든 이가 다 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강이 있다. 이 지식의 강들의 경우는 끝에 도달할 수가 없다. 오직 지금 이때에만 대양에서 강들이 나온다. 먼저 브라마푸트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다른 작은 강들이 나온다. 너희들은 각자의 노력에 따라서 등수대로 이것을 안다. 일부는 크고 나머지는 작다. 저 분은 모든 인간이 다이아몬드처럼 되게 만든다. 태양 왕조에 속하는 이들만이 황제와 황후들이 된다고는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 왕과 왕비가 그러하듯이 백성들도 그러하다. 너희 모두의 삶이 다이아몬드처럼 된다. 천국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이들은 다이아몬드처럼 된다. 이 브라마푸트라 강과 대양은 함께 산다. 여기에 올 때 너희들이 밥다다에게 왔다는 것을 너희 자녀들은 내면으로 이해한다. 아버지는 지식의 대양이며, 그는 이 브라마푸트라, 즉 브라마에게 들어온다. 그는 이 사람을 통해서 너희가 다이아몬드처럼 되게 만든다. 그것은 이제 너희 각자가 얼마나 노력하며 슈리마트를 따르는가에 달렸다. 너희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역시 너희들은 안다. 너희들은 계속해서 이 가르침들을 받는다. 파멸의 때에 시험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한쪽에서는 결과가 발표되고, 다른 쪽에서는 파괴가 시작될 것이다. 그 다음에 고통의 외침이 있을 텐데, 묻지도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파괴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너희들은 이해해야 된다. 너희의 왕국이 세워지면 그때는 모든 것이 다 깨끗해진 후라는 것도 역시 너희들은 안다. 너희들은 계속 순수해진다. 저 사람들은 불순하다. 모든 불순한 이들이 죽을 것이다. 그들은 각자 카르마의 잔고를 청산하고 집에 돌아갈 것이다. 불순한 인간이 단 한 명도 남지 않을 때, 이 세계는 순수한 세계라고 불릴 것이다. 지금 이때에 너희들은 순수하지만, 온 세계가 순수하지는 않다. 이것은 반드시 순수해질 것이다. 파멸이 일어난 후에 온 세계가 순수해질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세계라고 불릴 것이다. 누가 너희에게 새로운 세계의 시대에 대해 묻는다면, 새 시대는 황제와 황후가 옥좌에 앉을 때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하여라. 새 시대가 시작될 때까지는 낡은 시대가 반드시 남아있을 것이다. 시대가 여기에서 시작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브라민들은 새롭지만, 세계, 즉 지구의 모든 것이 새것은 아니다. 지금은 합류이다. 황금시대는 철시대 후에 와야 한다. 우리들은 첫 번째 공주와 왕자가 라데와 크리슈나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그때 당시엔 그것을 황금시대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락쉬미와 나라얀이 옥좌에 앉기 전에는 비록 라데와 크리슈나가 존재한다 해도 계속 이런저런 충돌이 있을 것이다. 보아라, 이 모든 것들을 되새겨야 한다.

황금시대가 시작되면 그 시대, 즉 태양 왕조의 아무개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왕자나 공주의 이름으로 한 시대가 존재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 그 중간 시기에는 오고감이 계속될 것이다. 더럽고 불순한 사람들도 역시 돌아가야 한다. 여기에는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남아있을 것이다. 여기에 남아있는 이들 모두가 고향에 돌아가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누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느냐? 지식의 대양이 설명하고 있고, 지식의 브라마푸트라 강도 역시 설명하고 있다. 둘이 함께 설명하고 있다. 매년 저 콤바의 합류가 있다. 이 콤바의 합류, 즉 지식의 대양과 강들의 합류는 오직 합류시대에만 일어난다. 너희가 지식의 대양, 어머니이며 아버지인 분에게 가고 있다고 너희 자녀들은 큰 강에게 말한다. 이 큰 강과 다른 강들을 통해서 바바가 우리에게 유산을 주고 있다. 즉 그는 우리가 다이아몬드처럼 되게 만들고 있다. 사람들은 대단한 행복과 순수함으로 콤바 델라에 가며, 거기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생각, 말, 행위에서 순수함을 유지한다. 그런 것들은 물리적인 순례이다. 순례자들은 자기 자신이 유익을 받기를 원한다. 안내자들은 순례자들만큼 유익을 많이 경험하지는 못한다. 안내자들은 단지 돈을 벌러 갈 뿐이다. 그들은 순례자들처럼 사랑과 신봉이 깊지 않다. 순례자들은 아주 순수한 감정으로 가며, 그들 중 일부는 비전을 보기까지 한다. 아마르나트에는 얼음으로 된 링검이 있다. 그 앞에 가면 그저 얼음만 보인다. 그러한 사랑과 신봉을 지닌 이들이 그것을 보면 그것이 자연의 경이로움이라 여기며 매우 행복해진다. 사람들은 얼음에서 링검이 저절로 생겼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순례가 참된 순례이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을 찾으려고 많이 헤매며 다녔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어디에서도 신을 찾지 못했다. 사진으로는 신을 찍을 수 없다고 바바가 너희에게 이미 설명해주었다. 점 하나를 어떻게 사진으로 찍을 수 있겠느냐? 설명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그가 별이라고 얘기한다. 별이 이마 가운데서 빛난다. 어떤 딸들은 이마 가운데 틸락을 찍는다. 영혼의 거주지가 이마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별을 찍는다. 그것은 참된 틸락이다. 왕국의 틸락은 더 큰 틸락이다. 그들은 물리적인 틸락으로서 왕국을 받는다. 너희 영혼들이 지금 주권의 틸락을 받고 있다는 것을 너희 자녀들은 지식으로 안다. 너희가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에게서 지금 왕국의 틸락을 받고 있다는 것을 너희 영혼들은 이해한다. 그들은 이마 가운데 무척 아름다운 별을 찍는다. 그들은 심지어 금으로 된 틸락을 찍기도 한다. 너희들은 이제 모든 지식을 다 받았다. 우리 별들이 지금 다이아몬드처럼 되고 있다. 우리 영혼들은 별들이다.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도 역시 똑같은, 아주 작은 별이다. 그러나 그는 모든 지식을 전부 다 지니고 있다. 이런 것들은 아주 심오한 내용이다. 너희들은 이제 지식을 받았다. 즉, 너희들은 깨달음을 받았다. 너희들은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의 형태를 보았으며 이해했다. 너희들이 영혼을 비전으로 보았듯이, 너희는 지고의 영혼도 역시 비전으로 보았다. 그는 말할 것이다: 나는 그저 너희들과 똑같은 뿐이다. 자녀들은 어째서 아버지를 비전으로 보기를 원하느냐? 영혼은 더 크지도 더 작지도 않다. 너희들과 아버지는 같다. 찬양과 역할만이 다를 뿐이다. 그의 역할은 독특해서, 다른 어느 누구의 역할과도 완전히 다르다. 어떤 두 영혼도 동일한 배역을 맡지 않는다. 두 배우가 똑같은 배역을 가질 수는 없다. 이것은 신의 경이로움이라고 불린다. 사실은 드라마의 경이로움이라고 불려야 하는데, 왜냐하면 바바는 그가 드라마를 창조했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언제 창조되었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것이다. 이것은 자연의 경이로움이라고 불린다. 이제 너희들은 이 사이클이 어떻게 도는지를 안다. 영혼은 별들인데 그렇게 큰 배역들을 맡는다.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은 전능한 권위자, 세계의 전능한 권위자이다. 그는 지식의 대양이라고 불린다. 여기에서는 아무도 지식의 대양이라고 불릴 수 없다. 베다나 경전들을 공부하는 자들은 단지 경전들의 지식을 줄 뿐이다. 아버지가 가진 지식은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 오직 신만이 와서 쉬운 라자 요가의 지식을 가르친다. 오직 그 하나만이 지식의 대양이라고 불린다. 따라서 이것은 강들의 합류이다. 너희들은 강이 대양에서 나온다는 것도 역시 이해한다. 일부 어떤 자녀들은 이것조차도 이해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말하는 것들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 지식의 대양이 어떻게 올 것이냐? 지식의 갠지스강들은 그에게서 어떻게 지식을 받을 것이냐? 이런 것들은 지식의 문제이다. 남들에게 들은 온갖 것들이 지각 안에 너무나 많이 들어 있어서, 그들은 참된 것들을 의식하지 못한다. 너희들은 이제 저 대양과 지식의 대양에 대해서 안다. 물질의 대양들과 강들은 계속 슬픔을 일으킨다. 대양이 범람하면 막대한 손실을 끼친다. 지금은 모든 이가 정화자인 지식의 대양을 기억한다. 아무도 저 대양이나 강들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들은 지식의 대양인 정화자를 기억한다. 너희 강들은 저 대양에서 나왔다. 아무도 그의 이름, 형태, 장소, 때를 모른다. 그에게 “쉬바”라는 이름을 붙여주고도, 또 그들은 그에게 “링검”이라는 이름도 주었다. 바바의 이름은 불멸하다. 쉬브 바바는 한 분 뿐인 창조자이며, 그의 창조는 오직 하나이고 영원하다. 아버지가 여기 앉아서 그것이 어떻게 영원한지를 설명한다. 이런 축제들 등은 황금시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모두 사라진다. 그 다음에 그것들은 신봉의 길에서 시작된다. 천국이 존재했었고 다시 오리라는 것을, 그러나 지금 이때는 지옥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이해한다. 아무도 그것의 기간을 모른다. 극심한 암흑이 있다. 아무도 사이클의 기간조차도 모른다. 그들은 이 드라마가 계속 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기간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아버지가 여기 앉아서 브라마의 입을 통해 모든 베다와 경전들의 요지를 너희에게 말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손에 경전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브라마를 묘사해온 것이다. 그가 손에 온갖 경전들을 다 들고 있을 수는 없다. 다른 누가 브라마를 통해서 모든 경전을 말해주는 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그 모든 것이 신봉의 길에 속한다는 것을 안다. 너희들은 계속해서 그것들을 공부해왔다. 자신들이 언제부터 그런 것들을 공부해왔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들은 단지 그것들이 영원하며, 비야스가 베다를 썼다고만 얘기한다. 그들은 베다가 더 높고 고귀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베다와 경전들은 기타의 피조물들이라는 글도 역시 쓰여 있다. 너희 자녀들은 똑같은 베다와 경전들이 다시 만들어지리라는 것을 안다. 그런 다음에 그것들에 지금과 똑같은 이름들이 붙여질 것이다. 너희들은 이제 너희가 또다시 숭배받을 가치가 있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 다음에 너희는 신봉자들이 되어서 사원들 등을 지을 것이다. 왕들과 왕비들이 사원들을 지으면 백성들도 역시 그렇게 한다. 신봉의 길이 시작될 때 모든 이가 사원들을 짓기 시작한다. 그들은 자기 집 안에도 역시 그런 것들을 지어놓는다. 락쉬미와 나라얀의 왕국 안에 라데와 크리슈나에게 바친 사원들을 지을 수는 없다. 사원들은 신봉의 길에서 지어진다. 계속 추락하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사원들을 짓는다. 태양 왕조와 달 왕조의 부동산을 상인 왕조와 슈드라 왕조가 즐긴다. 달리 어디에서 왕국이 오겠느냐? 똑같은 자산이 계속 존재한다. 큰 자산들이 점점 작아져서 결국에는 그것들 중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 그들은 계속 그것들을 서로 나눠 갖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숭배받을 가치 있게 되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지내며, 어떻게 신봉자가 되는지, 너희 자녀들은 이제 이해한다.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의 이름, 형태, 지역, 때, 역할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지금 이해하지 않았느냐? 신봉의 길에서도 역시 아버지는 신봉자들의 순수한 소망을 이루어준다. 불순한 욕심을 충족시켜 주는 것은 라반이다. 지식의 대양은 모든 지식이 너희의 지각에 자리잡게 해주었다. 모든 이가 다 이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 사이클에 여기에 속했던 이들이 계속해서 올 이들이다. 앗차.

가장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오랫동안 잃었다가 이제 다시 찾은 자녀들에게, 어머니이며 아버지인 밥다다가 사랑과 기억과 아침인사를 보낸다.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자녀들에게 나마스테.

#### **실천 요지:**

1. 살아 있는 동안 계속 노력하여라. 아버지의 가르침을 실천에 옮겨라. 아버지처럼 지식의 대양 마스터가 되어라.
2. 영적인 안내자가 되어 모든 이가 참된 순례를 하게 해주어라. 다이아몬드처럼 되고 남들도 역시 그렇게 만들어라.

**축복:** 흔들림 없고 부동해지고, 초연한 관찰자의 흔들림 없는 자리에 늘 앉아 있는 물질의 정복자가 되어라.

물질이 격변을 일으키든 아름다운 게임을 보여주든, 물질의 주인인 영혼들은 양쪽 모두를 게임으로 지켜본다. 그들은 게임을 지켜보기를 즐기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타파샤를 통해 초연한 관찰자의 단계에서 흔들림 없는 자리에 항시 앉아 있는 자들은 물질이나 사람들의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릴 수 없다. 물질의 다섯 선수와 마야의 다섯 선수들은 각기 그 나름의 게임을 펼치고 있으며, 너희는 그저 초연한 관찰자로서 그것들을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왜냐하면 오직 그제야 너희가 흔들림 없고 부동하며, 물질의 정복자인 영혼이라고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슬로건:** 아버지 한 분에게 그들의 마음과 지각을 안정시키는 자들은 숭배받을 가치 있는 영혼들이 되는 자들이다.

\*\*\* 음 산티 O M S H A N T I \*\*\*